

문제는 또한 유통과정에도 있다. 현상태에서는 공급은 완전 경쟁하에 있으나 수요면에서는 우육과 돈육의 독과점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또한 다른 부문에서도 완전경쟁을 위해서

는 아직도 제대로 되지않은 거래의 표준을 위한 표준화와 등급화가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양계(육계)산업의 앞날을 내다볼 때 국내적인 그 주안점으로서는 가격의 안정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구하고 그 기반 정착에 필수적인 조건임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함을 정책당국은 절감해야 할것이다.



## 계획생산체제 구현 바람직

이 태 근

(일산소재 소개농장경영, 본회 이사)

**양**계산업 특히 브로일러산업은 생산단계에서 생산조절이 효율적으로 되고 유통개선이 이루어져 가격안정이 될 때 닭을 기르는 보람과 땀흘린 노력의 대가가 올것이다.

닭을 키워놓고 출하시기가 가까워지면 시세에 마음을 졸여야 하는 심정은 어제 오늘의 실정은 아니다. 가격의 불안정, 질병피해 등 엄청난 손실을 당하면서도 대책없이 지속되어야 하는 우리 생산자들의 처지가 언제나 개선될지 모르겠다.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육계사육자들은 사업의 불안정성으로 어느정도 업을 지속하다가 떠나고 해서 3~4년만 지나면 생산자들의 얼굴이 바뀌게 된다. 생산조절, 유통개선, 생산자모임의 활성화, 효율적인

수매비축 등을 통해 육계가격이 안정되어 육계생산자들이 안심하고 생산에만 전념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브로일러가격안정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 ○ 생산조절

그동안 누적되어 온 사료 및 병아리의 외상구매는 부화장에서 일단 생산된 병아리는 양육가들 손에 들어가 병아리값 외상, 사료값외상 등의 방법으로 계획성없이 무작정 입추, 생산되어 출하되며, 결국 생산과잉을 초래해 가격하락을 부채질하게 된다. 영세한 생산자의 입장에서 그동안 누적된 부채때문에 계속 입추를 해야 하고, 그나마 입추를 해야만 비록 부채지만 자금이 회전되어 먹고 살 수 있기에 이러한 악순환은

계속적인 생산과잉과 산물가격하락을 부채질하게 된다.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브로일러 사육자들은, 스스로 입추조절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생산해내는 구조적인 생산과잉속에 해매고 있는 실정이다.

병아리 생산과잉, 사료판매 경쟁에 휘말리기보다는 생산자 각자가 스스로 자제력을 갖고 입추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지역별, 단지별로 합심하여 서로 정보를 교환해 효율적으로 입추를 해야 한다. 또 부화장들도 병아리 생산에 신중을 기해 무모한 병아리생산, 판매를 지양해서 사육농가를 살리고 전체 양계산업이 안정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 생산자단체 활성화

현재 육계사육자들은 각지역(단지)별로 생산자 모임(양계 협회 분회, 계우회)을 갖고 사육, 질병, 판매 등의 정보를 나누고 있다. 생산자가 스스로의 업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더욱 활성화 시켜 앞서 얘기한대로 입추를 단지별로 조절함은 물론 출하계획까지도 세워 순서대로 타지역과의 정보교환을 통해 출하한다면 상인들에게 당하는 불이익을 많이 감소할 수 있고, 결국은 생산자에게 이익이 돌아올 것이다.

약간의 가격하락요인이 발생하면 서로 당겨 출하하려고 이 상인 저상인에게 전화문의를 하게 되고, 이는 결국 천수는 만수가, 만수는 다시 10만수가 되어 급격한 폭락세를 양계인 스스로 만드는 결과가 되는 일들이 많이 경험했다.

생산자는 스스로 이익을 찾기위한 자구책으로 생산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용, 단계적인 공동판매(출하)로 불필요한 손해를 줄이고 상인들과의 거래에 있어서 생산자의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고 불황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 유통개선

닭을 키워 일정기간이 지나 일령(또는 무게)이 되면 시세에 관계없이 시장에 내보야 하는 살아있는 생물을 취급하는

육계생산업의 취약점으로 말미암아 유통상인의 횡포는 현 소비체제의 큰 난제이며, 소비위축의 큰요인이 되고 있다. 그렇다고 생산자가 도제해 냉장보관하면서 팔 능력도 없고 다른 산물처럼 직관은 더욱 어렵다.

시기에 맞춰 꼭 팔아야 하는 문제로 출하시 상인에게 끌려다니고 그들의 폭리, 횡포에 꿀먹은 벙어리 신세가 되어야 하는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건 일원화된 출하창구가 필요하며 계약생산 판매로 유통체계가 정리되어 공동판매, 계통출하가 이루어져 생산자·소비자를 공히 보호하고, 육계사육가는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

○ 생산자 보호정책

계절식품인 닭고기는 많은 영세농가에 의해 생산되고 있어 호·불황이 계속되는 어려움이 있다. 생산이 과잉될 때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가 물량이 약간 부족해 가격이 오르면 수입운운해 영세 양계인을 불안하게 하는 정책은 불식되어야 한다.

정부는 정확한 통계에 의한 수급물량을 정확히 파악해 과잉때 적기에 수매비축해 부족시 조절출하에 년중 가격의 진폭을 줄여 안정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로 양계산업을 이끌어 주어야 한다.

질병문제도 적절한 방역대책

을 통해 생산자들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기울여 주어야 할 것이다.

일이 터지고 많은 손실을 본 다음에야 수습책을 펴 많은 영세한 생산자는 도산해 가산을 탕진하고 양계장을 떠났던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육계산업에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배려를 해 생산자들은 오로지 천직으로 삼고 생산에만 몰두할 수 있기를 기다린다.

○ 계획생산 운영의 필요

하루속히 육계업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판매업체와 계획생산체계가 이루어져 생산자는 상품성 높은 닭고기를 싸값에 생산하는데만 열중하고 판매업체(계열주체)에서는 판매계획에 의거, 전량 수매하여 상표화된 부분육, 가공식품을 개발해 소비자에게 질 좋은 단백질원을 공급하게 되어 국가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생산자들은 현시점에서 외국처럼 사료, 병아리, 기타 자재를 지원받지 않더라도 출하만이라도 안정되게 할수 있다면 생산의욕은 고취될 수 있다고 본다. 계획생산을 주도하는 계약주체(판매업체)는 오로지 판매에만 신경쓰고 생산자는 사육에만 전념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면서 나름대로 브로일러 가격안정을 위한 바램을 적어보았다.